

900여 브랜드가 한곳에...유명 맛집에서 체험형 MD까지

현대백,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샵 진수 보였다

현대백화점은 캐시카우 창출을 위해 총 역량을 집중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라이프스타일형 판교점을 지난 21일 오픈했다. 체험형 매장을 늘린 몰링(대형복합쇼핑몰)화된 백화점이다. 프리미엄 아울렛과 다양한 복합쇼핑몰 등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쇼핑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찾는 소비자의 집객력을 최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판교점은 영업면적(9만2578㎡)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롯데 본점(7만㎡)보다 25% 넓다. 분당 상권에 있는 AK분당점과 롯데 분당점보다는 각각 2.4와 3배 가량 크다.

현대백화점은 분당·용인 상권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안양 등 경기 남부 전역으로 상권을 넓혀 쇼핑과 문화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도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8000억원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은 “판교점의 압도적인 하드웨어와 MD 경쟁력 및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마케팅을 통해 기존 백화점

과 차원이 다른 쇼핑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지난 19일 프리오픈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둘러봤다. 교통편은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내리면 5분 안에 도착해 편리하다.

판교점은 천장과 내벽은 하얀 색을 사용해 깔끔하고 중앙은 뚫린 오픈형이다. 고객이 지나 다니는 통로가 기존 백화점 보다 2배 넓어 보였다.

옷보다 맛을 더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소비자로 인해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 식 음매장이 점점 중요해진다. 판교점에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식품관(1만3860㎡)이다. 현대 식품관은 국내 최대 식품관 신세계 센텀시티(8600㎡) 보다 1.6배 큰 규모로 축구장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하다.

유명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통해 유명세를 탄 케이크 전문점 매그놀리아와 뉴욕 브런치 카페 사라베스 키친 및 덴마크 대표 음료 체인점 ‘조앤더주스’가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총 900여 개 브랜드(식품 포함)가 판교점에 입점했고 15개 현대백화점 점포 중 브랜드 수가 가장 많다. 현대백화점 목동점(750여 개)보다 150여 개가 많다.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멀버리 등 46개 해외명품 브랜드는 경기 남부 상권에 처음 선보였고 프랑스 의류 잡화 브랜드 이치아더와 프랑스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디자인 바이(Loft design by), 이탈리아 여성복 브랜드 울트라시크 등 37개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입점했다.

1층은 IWC, 태그호이어, 제니스, 오메가 등 7개 해외 유명 시계 브랜드를 모아 별도 존(Zone)을 운영하고 있다.

2층은 수입의류, 컨템포러리, 구두, 핸드백 브랜드가 모여 있다. 공공집기를 사용한 보더리스(브랜드별 경계를 없앤 매장구성) 매장이지만 고객이 브랜드를 알 수 있게 브랜드별 경계는 살렸다. 바닥 뿐만 아니라 공공집기에 대리석을 사용해 고급화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판교점은 가장 많은 구두 전문관이 입점했다. 2층 뿐만 아니라 3, 4층에 구두 브랜드가 있고 2층은 27개 구두 브랜드가 입점했다. 판교점에 오면 유명 브랜드부터 신생 브랜드까지 모든 구두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층 끝에 위치한 여행테마 트래블갤러리는 여행사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카페, 가방, 책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편집숍이다. 반대편에는 뉴욕에서 브런치 맛집으로 유명한 사라베스 키친이 들어섰다.

판교점은 이처럼 각 층마다 특별한 테마가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마련돼 있다. 곳곳에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

5층은 비이커와 에피그램 등 패션과 접목한 라이프스타일 매장과 현대어린이책 미술관, 야외 회전목마, 스포츠 브랜드 등



지난 21일 오픈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각 층마다 특별한 테마가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마련돼 있다.

이 들어섰다. 가족 단위 고객이 한 층에서 쇼핑, 문화, 식사를 즐기고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남성패션과 영화관이 들어선 6층은 CJ E&M이 운영하는 격투기 케이블TV 채널 XTM과 제휴한 라운지가 눈에 띈다. 이 라운지에서는 자동차 프로그램 ‘톱기어’ 등 남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남성전용 휴게실 조성 비용만 3억원 정도다. 그 외 남성 캐릭터샵, 이발 면도를 할 수 있는 바버샵 등도 남성고객을 잡기 위해 즐길 수 있는 매장으로 꾸며졌다.

성남시에서 온 40대 주부는 “브랜드가 많고 다닐 수 있는 통로 공간이 넓어 복합쇼핑몰같은 느낌이다. 반면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 혼란스럽기도 하다. 곳곳에 있는 유명 식음 매장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강화 인터보그 대표는 “쇼핑몰 뿐만 아니라 마트, 백화점이 라이프스타일 형태로 가고 있다. 판교는 가족단위 고객이 많은 상권이다. 유통이 살아남으려면 지역과 밀착된 MD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이 많아지면서 체험MD 위주로 가야 고객이 찾는다. 매장 기능이 바뀌고 있고 문화와 철학,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매장위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정정숙 기자 jjs@ktnews.com



밀레, 더 릿지 354 2호점 오픈 밀레(대표 한철호)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편집샵 ‘더 릿지 354’ (The Ridge 354)의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더 릿지 354란 단순한 아웃도어 쇼핑몰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감성을 공유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모색하게 도와주는 편집샵을 의미한다. 밀레, 엠리밋, 나파피리 등을 비롯해 콘트 오브 플로렌스, 루디 프로젝트, 침스, 렉시온, 오피넬, 바이오 라이트, 지코소모 등 골프웨어, 아이웨어, 리빙, 아웃도어 기어 브랜드를 판매한다.

/강재진 기자 flykjj@ktnews.com

현대백 판교점, 빨간 속옷 행운 이어갈까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오픈을 맞아 진행한 빨간 속옷 할인 행사 ‘레드 런제리 페스티벌’에서 약 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진행했으며 비너스, 비비안, 와코루, 트라이엄프 등 런제리 브랜드의 이월 상품이 약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개업 행운을 불러주는 빨간 속옷 행사는 약 15년 전 부산에서부터 시작됐다. 비너스, 와코루를 전개하고 있는 신영와코루의 최학도 상무가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백화점 관계자들과 함께 기획해 시작된 행사다. 부산에서 빨간 만선기(짐을 가득 실었다는 표시로 배에 매다는 깃발)를 다는 유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정당한 값어치의 돈을 지불하고 빨간 속옷을

가져가야 복이 온다는 스토리를 더했다. 2009년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오픈 때 진행했던 빨간 속옷 행사는 약 15억 원으로 매출 최고점을 기록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의 오픈 행사 4일 동안 비너스만 매출 7000만 원이 나왔으며 이번 현대백화점의 ‘레드 런제리 페스티벌’은 비너스 1억 3000만 원, 와코루 5000만 원으로 성공적이었다. 신영와코루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직원 약 40명을 투입했으며 직원들 모두 블랙 수트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으로 주변 백화점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백화점은 지역 상권 시장 규모가 15조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8월까지 1년간 8000억



비너스는 ‘레드 런제리 페스티벌’ 첫 날인 19일에만 매출 1억 원을 기록했다.

원 매출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그만큼 주위 백화점, 가두점 매출을 뺏어 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권 신장률.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으로 성남시 상권 신장률이 얼만큼 오르는 것이다.

신영와코루 황덕선 본부장은 “매번 백화점 오픈을 하면서 어떤 상권이던 신장률은 5%이상 10% 조금 못 미친다. 업주 입장에서는 안 들어갈 수는 없고 투자비가 들어가는 만큼 단일 매출이 나와 줘야

손익이 발생되고 이익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어려운 것이다”고 말했다.

런제리 조닝도 행사 이후 24일부터 에스컬레이터 앞 중앙 매장을 중심으로 왼쪽은 비너스, 비비안, 와코루가 중앙매장과 오른쪽은 트라이엄프, 바바라, 디케이 앤와이, 코사벨라 등이 편집샵 형태로 들어갈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yejikim@ktnews.com